

## 악한 제국: 열 가지 재앙, 이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세르 인트레이터



열 가지 재앙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방대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 4: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출 9:12**)과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까지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출 10:1**). 바로는 이전의 재앙들이 있는 동안 이미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은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바로는 모두 악한 태도로 반응하였습니다. 바로가 자유의지 안에서 마음의 강박함이 “충만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로써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막대기를 바닥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막대기는 뱀이 되었습니다 (**출 4:3**). 이것은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의 세력에 대해 모세가 가진 영적 권세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40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동안 이집트는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출 7:12**) 피를 물로 변하게 하는 (**출 7:22**), 주술적인 우상숭배에 나라의 관료들도 참여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들이

뱀으로 왕관을 만들어 쓸 만큼 주술이 나라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적인 영들을 몰아낼 능력으로 미리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 눈에는 눈

장자의 죽음은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들이 80 년 동안 무고한 아이들을 죽여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출 1:16).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은혜가 선행되지만 또한 언제나 완벽히 공의로운 (다른 이들에게 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홀로코스트"의 첫 번째 유형이었는데, 이것은 후에 하만, 헤롯 왕, 나치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의 지하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모세와 예수를 포함한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하드주의자들은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 비슷하기 보다는 악한 바로 왕들과 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드주의자들은 서구 사회의 타락과 성적 부도덕으로 만연된 죄들을 심판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비난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 17:16-17** 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슬람교도들은 수많은 무고한 소녀들을 강간해 왔고 (성적 부도덕의 한 형태) 살인을 저질렀으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것들 역시 십계명 위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스스로 따라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열 가지 재앙 이후,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됩니다. 이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세 세대에 걸쳐 잔혹한 노예 생활로 억압받아 온 무력한 군중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너무도 잔혹했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 2 라운드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운 심판을 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공의로운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시 96:13, 98:9; 계 15:4; 19:11**).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도덕적 정의
2. 은혜를 베푸심
3. 명백한 경고
4. 사법적 절차
5. 선지자들에 대한 도덕적 요구 사항

이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5 가지 중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때에 바로 왕이 다스리던 이집트는 역사상 가장 마귀적인 제국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서를 보면 것처럼 악한 제국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악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살인, 대학살, 마귀적이고 포악한 제국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 탈출 사건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주:** 히브리 어원 (א-ר-ר) ארר은 적그리스도(또레르)의 어원과 같고, 대환란(짜롤)과 같으며 이집트(미쯔라임)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아리 소르코 램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신약성경에서 쓰여진 것은 **사도행전 11:26** 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가르쳤고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새 신자들 혹은 새 제자들이 예수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 (메시아닉)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마세테스)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바나바 및 다른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도를 따르는 자들” (**행 9:2**)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 새로운 제자들은 원래 이교도였으나 이제 신자가 되어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교도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신약의 다른 두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28** 에서 아그립바 왕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여겼는데, 그가 회심할 뻔 한 것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16** 에서 이 단어는 열방의 많은 순례자들을 일컬었는데, 이들에 대해 **베드로전서 2:10** 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에베소서 2:11-13** 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구별된 정체성을 지닌 채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한 새사람” (메시아의 몸, 혹은 이스라엘 연방국)입니다.

## 에스겔서 개관- 2 부



2 부에서는, 아세르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예언적인 장들의 개관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 안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영어로 된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